

장애인과 일터

Vol.333

2023 January
KEAD Monthly Magazine

두근두근 ‘새로운 시작이야’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January Vol. 333

두근두근 '새로운 시작이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부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올해는 또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근두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공감, 만나다

12 행복한 내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을 실현합니다
박현철·소형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

16 함께하는 일터

장애인 바리스타
“가로수길 핫플에서 즐겁게 일해요”

20 우리는 KEAD

‘걱정인형’에 근심 맡기고 유쾌한 새해 맞아요
최은영·최은희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상담원 주임

26 KEAD 포커스

2023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IT 취업 돋는 광주 디지털훈련센터 개소

28 세계는 지금

장애인을 노동력의 원천으로 보는 호주



공감, 두드리다

03 공감 테마

두근두근 ‘새로운 시작이야’

04 생각 더하기

‘간절한 소망’이 새 출발과 선택의 기준

06 공감 인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두근두근, 나의 출발점’

08 KEAD 사전

장애인과 장애인

10 일터 트렌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데이터 라벨러



공감, 함께하다

32 트렌드 보고서

MZ세대 아트 컬렉터, ‘새롭고 리즈너블한가’

34 배리어프리 여행

추위를 피해 떠나는 지식 여행, 박물관 투어

37 고민톡 상담특

알쏭달쏭 직장생활
“회사 사람들이 저와 동료더러 사귀라고 해요”

39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40 KEAD 툰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지체장애인 편

42 KEAD 뉴스

43 KEAD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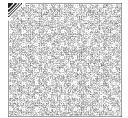
두근두근 ‘새로운 시작이야’

삶을 충만하게 하는 선택과 출발에 관하여

새로운 시작이 설레는 이유는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다고 소문난 영화의 첫 장면을 기다릴 때가 설렘 가득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이 본 흥행작과 달리 아무도 본 적 없고 믿을 만한 리뷰도 없다는 점에서 설레기만 할 수는 없고 두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와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요.

삶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의 선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맞서 한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2023년 1월호는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2023년 새롭게 출발하는 [장애인의 일터]와 함께 두근거리는 기대감으로 희망의 새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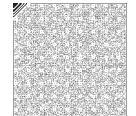


‘간절한 소망’이 새 출발과 선택의 기준

글 비올리스트 김경석

* 시각장애인인 김경석 님의 구술을 토대로 편집부가 정리한 글입니다.

길지 않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음악을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고, 가장 의미 있었던 출발은 2019년에 23세의 늙은 나이로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음악원 관현악과에 입학한 일이다. 23세가 왜 늙은 나이냐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는 내 나이와 장애인이라는 조건이 무겁게만 느껴졌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선택이었다.



나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고 비올라 연주자다. 인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에서 마쳤다. 현재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와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졸업 후에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주자로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크다.

빛을 보지 못하는 전맹이라는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연주는 전혀 다른 도전이었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손가락 장애도 갖고 태어나 더욱 그랬다.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붙어 있어 어릴 적 분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다섯 번째 손가락이 두 마디 가까이 짧아 악기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다보니 악기 중에서도 더욱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현악기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

나를 구한 오케스트라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진로전공과정을 선택하고 안마사가 되었을 때는 음악을 좋아한 것조차 후회됐을 정도로 힘들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마사로 생계를 이어갈 때 방황하던 나를 잡아준 것은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선배였다. 선배는 “이대로 포기할 거냐”며 오케스트라 단장님께 나를 소개했고 단장님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셨다.

대학교 1~2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다. 시각장애인용 교재나 악보는 턱없이 부족했고 점자 악보가 있어도 교수님이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 교수실과 과사무실 문턱이 높도록 드나들면서 상의하고 도움을 구했다. 3학년부터는 이론 과목이 줄고 실기가 늘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교를 연습하는 게 새로운 과제였다. 현악기는 전공자가 적어 대학교 오케스트라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 비장애인 전공자들과 나란히 경쟁하고 협력하

며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다. 하루하루 전쟁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행복했다.

나는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사는 쪽이 더 두려웠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가 더 두렵고 시작하기가 주저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 누군가에게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는 분들께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시작의 설렘과 기대를 나눌 곡들을 추천하고 싶다. 로시니의 ‘도둑까치 서곡’과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두근두근, 나의 출발점’

삶은 출발과 끝의 반복이고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수많은 사람의 시작과 선택을 거쳐 하루하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공단 사람들의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달의 테마 ‘시작’에 관한 공단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들어봤다.

정리 편집부 / 그림 CANEPAZZO



이영우 부장
강원지사 취업지원부

시작은 의무로,
결과는 대상으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계기는 대개 고용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울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시기, CJ CGV의 인사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장애인을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줄이시라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 후 CJ CGV는 우리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 직영 상영관에 장애인을 두 명씩 고용했다. 전국 각 점포의 매니저가 참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공단이 주관하는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시장에서 대상을 받았다.

나는 CJ CGV와 같은 기업 사례를 경험하면서 우리 공단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입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단과 내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갖는 이유다.



2021년 9월에 입사해 이제 1년 남짓 지났으니 아직 헛병아리 직원이다. 처음 출근한 곳은 수원에 있는 경기지역본부였다. 취업지원부에 속해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입사했기 때문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업식이 있었는데 부서 분들이 축하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갓 출근해서 사람도 일도 모두 어색하고 잔뜩 긴장했던 시기라 깜짝 선물이 정말 고맙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분들은 내가 본부로 이동한 후에도 잘 지내는지 계속 연락하고 걱정해 주셨다.

지금 속한 능력개발지원부에서도 다들 섬세하게 챙겨 주신다. 각자 맡은 일이 달라도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어려울 때 서로 돋는 분위기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돋는 일을 원해서 공단에 지원했다.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그대로, 서로 돋는 것부터 배우는 중이다.



이태인 주임

본부 능력개발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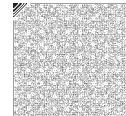
두근두근 사회 첫발,
동료들 덕에 훈훈



김민수 과장
본부 고용컨설팅센터

두근두근,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2018년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장려금, 서무, 회계 같은 일을 담당했는데 돈과 관계된 업무라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첫날 인터넷 입력창을 마주하고선 자금 이체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공단에 고용컨설팅센터가 생겼다.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컨설팅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곳이다. 나는 2020년에 이곳으로 옮겨왔고 공공기관 고용컨설팅 운영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많고 작성 방식도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험 많은 관리자와 부서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새로 생긴 조직이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모두에게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할 때여서 그 도움이 더욱 고마웠다. 처음 이체 버튼을 누를 때처럼 조심스러웠지만 나의 또 다른 시작에 이분들이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지금도 무심코 사용되는 ‘장애인’은 오랜 논의를 거쳐 ‘장애인’으로 바뀐 말이다. 장애자의 ‘자(者)’는 ‘놈’이라는 뜻이고, 비하 의미가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사람 인(人)’을 쓰는 장애인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을 치르면서였다.

글 편집부

1989년 ‘장애인’ 용어 공식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꿔 부르자는 주장을 적잖은 반론을 맞닥뜨렸다. 반대하는 쪽은 과학자, 노동자, 당선자 같은 예시를 들어 ‘-자’가 비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앞의 예시 단어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거나 행위의 결과로 규정된 사람이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이 논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장애자라는 단어가 쓰이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단어가 가진 부정적 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언어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계기는 1988



년 서울올림픽과 나란히 개최된 서울패럴림픽이었다. 당시에는 패럴림픽이 아니라 장애자올림픽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는데, 이 국제행사를 계기로 우리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있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1989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공식 명칭이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영어권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이 더 민감하게 다뤄진다. 과거에는 ‘장애가 있는’을 의미하는 단어로 ‘handicapped’가 사용됐으나 지금은 차별 용어로 받아들여진다. ‘handicapped’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장애가 있어도 휠체어를 타거나 해서 보정을 하면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신 어떤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disabled’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고, 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영문명칭에도 있는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통용된다.

장애인을 친근하게 불러야 할까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고쳐 부르는 것,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을 바로잡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권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격이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도 종종 쓰이는 ‘장애인’ 같은 말 역시 부적절하다. 어떤 이는 ‘벗 우(友)’를 사용해 장애인을 친근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왜 문제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가. 출신 국가, 경제 능력, 성적 지향 등 여러 이유로 소수자 혹은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친구’라고 규정하는 용어는 없다. 사적 개념인 친구를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방국(友邦國)’처럼 사실상 친구가 아닌 대상을 친구로 지칭할 때뿐이다. 장애인과의 친구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친구가 아니어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 친구니까 돋는다는 식의 감정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데이터 라벨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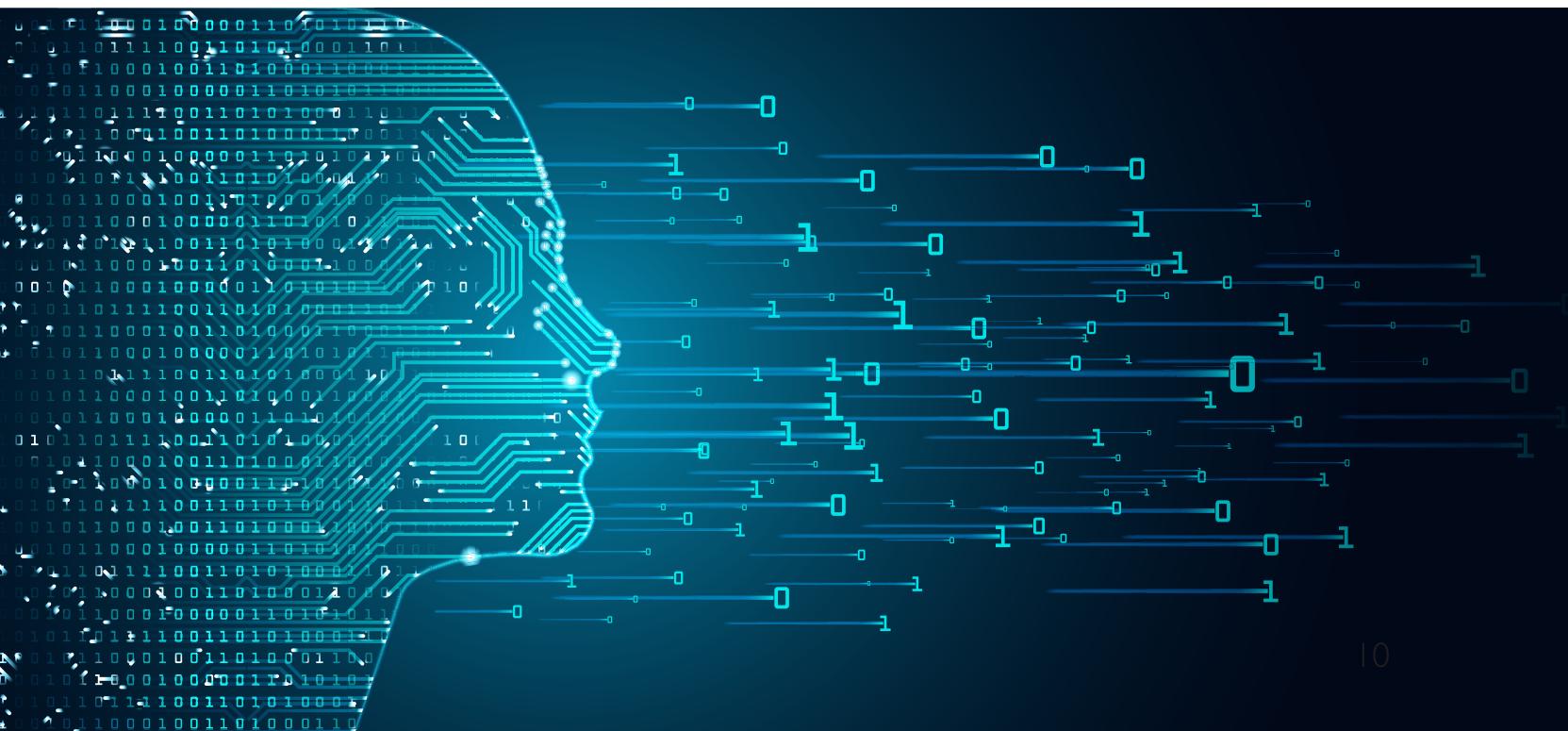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가공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점자, 수어 등의 데이터 구축 작업에서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 편집부

데이터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사람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내가 본 동영상과 비슷한 동영상이 추천목록에 뜨고 최근에 산 옷과 비슷한 쇼핑 품목이 광고창에 나타난다. 서비스 기업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이들이 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취향이나 사용 패턴을 안다는 것은 이용자가 남긴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뜻이다. 단순하게는 동영상 제목이나 상품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산업에서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인지하려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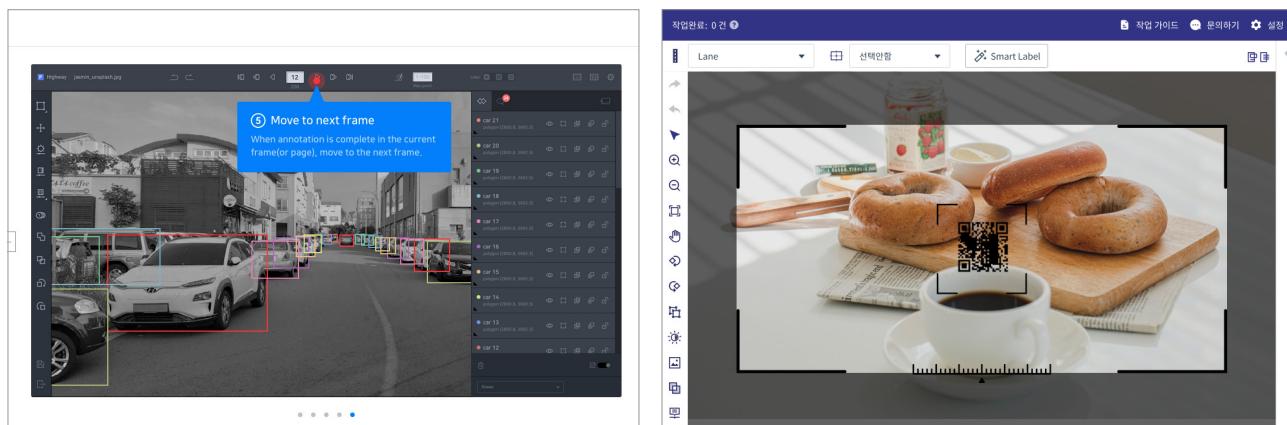
들면 영상의 배경이 된 건물에 주소를 달 수도 있고 사진 속 어느 지점에 자동차가 있다고 표시할 수도 있다. 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할 수도 있다.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 다시 말해 데이터에 라벨(label)을 달아주는 작업이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이고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은 데이터 라벨러(data labeler)이다. 다른 말로는 ‘annotate(주석을 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어노테이션(annotation) 작업, 어노테이터(annotator)라고도 한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라벨링 도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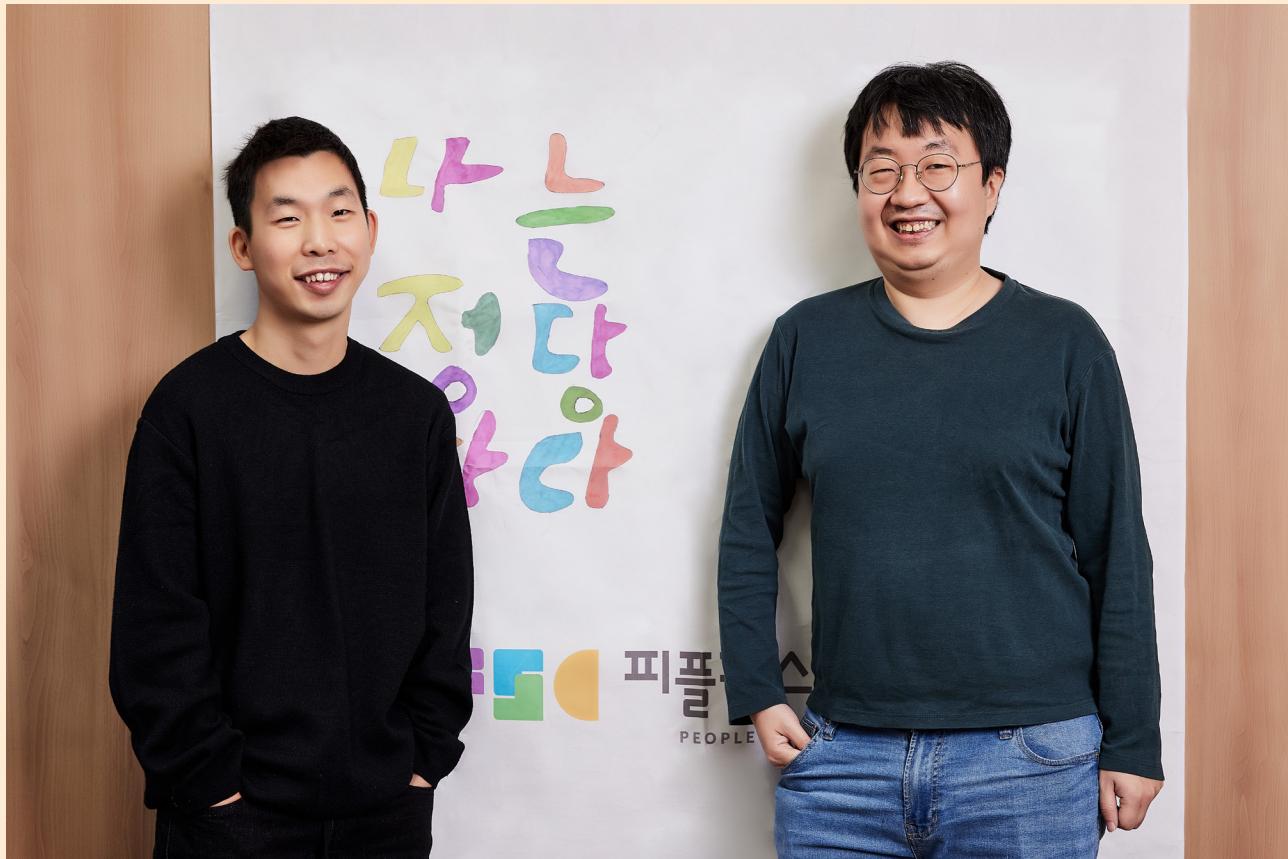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 영상, 텍스트, 오디오 등 가공할 데이터 종류와 활용 목적에 따라 작업 방식이 달라진다.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블랙올리브 같은 데이터 라벨링 전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기 위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로는 크라우드웍스, 에이아이웍스 같은 작업 사이트나 앱이다. 작업량을 할당받아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안정적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정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데이터 라벨러를 채용하는 회사들은 업무 시작 전에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조건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필수고 유사 업무 경험자나 인공지능 데이터에 이해가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크라우드웍스, 테스트웍스 같은 업체와 협약을 맺고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짧은 교육을 이수하고 시작할 수 있는 초급 수준의 데이터 라벨링은 단순 반복 업무가 많고 높은 보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길러서 데이터 검수나 프로젝트 진행 등 좀 더 어려운 업무에 도전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



데이터 라벨링 도구 사용 예시 / 사진. 테스트웍스, 크라우드웍스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형민(왼쪽), 박현철 씨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을 실현합니다 박현철·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동료지원가

‘피플퍼스트’는 장애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운동이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연대를 실현하는 단체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 함께한 박현철 씨와 소형민 씨를 만났다.

글 편집부 * 이 기사는 공단 SNS 내꿈내일 기자단의 김예지 기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 사진 김덕창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을 돋는다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돋는 사업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지원가’가 되어 같은 장애 유형의 참여자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 수행기관에는 동료지원가의 인건비성 경비, 슈퍼바이저 지원금, 참여자 수당, 연계수당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동료지원가’라는 이름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료지원가가 또 다른 중증장애인인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돋는다는 점에서 피플페스트서울센터의 활동과도 지향점이 유사하다. 피플페스트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자조모임과 동료 상담을 중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서로 교류하면서 사회와의 접촉을 늘리고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립생활의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다.

박현철 씨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피플페스트서울센터를 찾았다. 2018년에 피플페스트서울센터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했고 2020년에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동료지원가’로 다시 합류했다. 소형민 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성민복지관에서 제과제빵 보조로 일하다가 2019년에 이곳으로 왔다.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보고 추천한 것이 계기였다.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기대를 접고 있던 차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피플페스트서울센터 워크숍



마주 보고 대화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

동료지원가는 말 그대로 다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상담하고 교육하며 그들과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고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꾸민다. 장애인 권리 문제를 의논하고 교육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도 주요 일과다.

동료지원가마다 담당하는 참여자 수는 다르지만 연간 20~30명을 만난다. 동료지원가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요령과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타인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과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과정이 선물처럼 소중한 경험이 된다. 박현철 씨는 센터의 다른 동료지원가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가장 즐겁다고 했다.

“다른 동료지원가들과 함께 일하고 회식하는 경험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처음으로 상담과 자조모임을 준비할 때는 PPT 자료를 만드는 게 어렵고 어떤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동료지원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고 느꼈어요.”

소형민 씨는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었던 참여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참여자가 사는 곳을 방문해 같이 청소하고 밥을 먹으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전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소개할 때 소형민 씨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지난 10월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옹호대회인 한국피플퍼스트 대회에 같이 참가했던 이야기도 들려주며 “신나게 즐기고 밥을 나눠 먹었던 게 정말 기분 좋았다”라고 말했다.

동료지원가에서 더 큰 조직의 리더로

동료지원가와 참여자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박현철 씨와 소형민 씨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처음 해보는 업무에 적응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늘리며 성장해 왔다. 센터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아 더욱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고 있다. 소형민 씨는 권리옹호팀의 리더를 겸하고 있다.

“권리옹호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합니다. 저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맡아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의 영화를 쉽게 접하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영화제에서 사회도 봅니다.”

박현철 씨는 2021년에 센터장으로 선출됐다. 센터장은 별도 조직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동료들이 박현철 씨를 후보로 추천했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는 동료상담과 권리옹호에 집중하면 되니 마음이 편했지만,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참가, 한국피플퍼스트와 각종 단위 활동 등 할 일이 늘었고 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동료지원가와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회의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길

박현철 씨는 소형민 씨에 대해 “동료지원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다. 직책과 상관없이 모두 이름을 부르는 것은 피플퍼스트서울센터의 평등한 조직문화를 보여준다. 센터는 대부분의 일을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회의가 여러 주체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통합주간회의로 변경됐다. 송효정 사무국장은 사업 경험이 쌓여 운영구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동료지원가 회의, 실무자 회의, 비발달장애인 실무자 회의 등 여러 구조의 회의를 운영했어요. 모든 내용을 전체 인원이 공유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할지,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동료지원가들이 각자의 업무와 언어에 익숙해지면서 통합회의에서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 내용은 각자 결정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 구조를 마련한 것 이 이 사업으로 얻은 큰 성과입니다.” 동료지원가들이 활동가로서 성장하는 동안 센터도 달라졌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보고 겪었다. 이들은 그렇게 근로의 대가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 더욱 커진 신뢰와 희망을 함께 나눈다.



장애인 바리스타 “가로수길 핫플에서 즐겁게 일해요”

2022년 11월 24일, 가로수길 북쪽 초입에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다. 티몬 본사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이 카페의 이름은 ‘티몬위드유 카페(TMON With You Cafe)’. 영문 머리글자를 따 ‘TWUC’라고 쓰고 ‘툭’이라고 읽는다. TWUC는 티몬의 자회사형 1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티몬위드유가 운영하는 카페로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글 편집부 / 사진 김덕창

장애인이 일할 자리, 우리가 만들자

강남에서, 그것도 물가가 비싸기로 이름 높은 가로수길에서 3,000원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는 흔치 않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커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매장이지만 벌써 커피 맛이 좋아서 온다는 단골손님들이 생겼다.



밖에서 보면 어느 카페와 다르지 않고 인테리어도 감각적이다. 맛집과 명소 트렌드를 이끄는 가로수길의 카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품질과 서비스, 가격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다. TWUC는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표방하되 지속가능한 경영을 모색한다. 티몬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티몬워드유를 설립하고 카페 오픈을 준비할 때부터 이 분야 경험이 풍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도움을 충분히 받은 이유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이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인증받은 사업장으로, 공단이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티몬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에 집중했다. 인사책임자인 이수현 이사는 지원이 적고 관리도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장애인 고용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냐고 하면 회사에 장애인이 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닐까. 처음에는 고객센터나 단순 사무직 일자리를 생각했는데 공단의 자문으로 아예 새로운 업, 즉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을 위해 음료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장애인 바리스타



TWUC 내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여유롭게 꾸몄다.

장애인 바리스타와 사회복지사 매니저

TWUC에서 일하는 인원은 장애인 바리스타 10명과 매니저 3명이다. 이들은 3팀으로 나뉘어 1일 3교대로 근무한다. 바리스타 10명 중 8명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매니저 3명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활동하던 사회복지사들이다.

바리스타들은 지적장애, 자폐, 청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커피를 추출하고 음



료를 만들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도 할 수 있도록 2주간 직업훈련을 받았다. 위생관리, 안전교육은 기본으로 실시하고 카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롤플레잉 훈련도 진행했다. 철저한 준비와 연습에 힘입어 TWUC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방문으로 주문이 몰리는 편이지만 바리스타들의 차분한 응대로 원활히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염효재 파트장은 장애인과 꾸준히 소통해온 매니저들의 역할도 설명했다.

“바리스타 채용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회복지사를 매니저로 먼저 채용한 것이 카페 오픈 준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니저들은 장애인 근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카페를 함께 만들고 있어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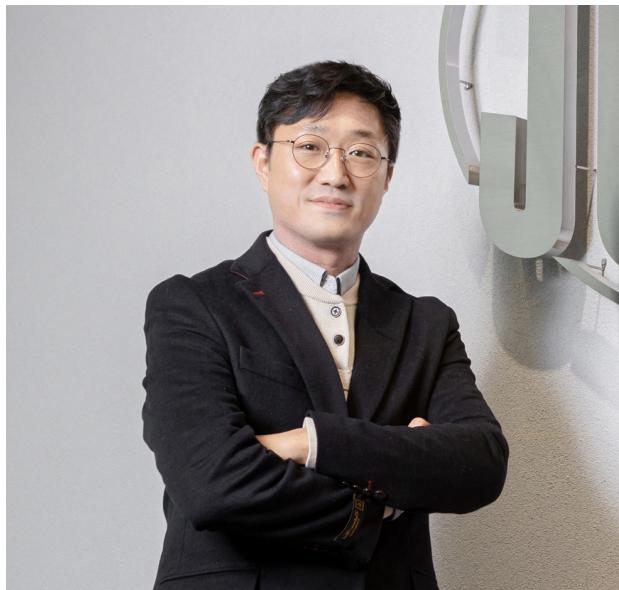
TWUC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은 음료를 만들고 고객 응대도 직접한다.

위로와 교류가 필요한 모두를 위해

장애인의 근무하는 카페라는 사실을 알고 카페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출입구에는 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다. 매장 한가운데에 배치한 대형 테이블도 모서리 없는 원형 탁자다.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여유롭게 비워두기로 했을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수익을 생각하면 테이블을 놓아야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데 카페를 준비하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고객이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에 대한 선입견을 안고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실내외 어디에도 ‘장애인 직원을 배려해 달라’는 식의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곳은 편견 없는 교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카페 이름 ‘TWUC’는 ‘TMON WITH YOU CAFE’의 약자인 동시에 ‘툭’이라는 말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지었다. ‘무심코 툭 건넨 한마디로 마음이 툭 트이면 세상에 툭 던져진 우리의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따뜻한 의미를 담았다. TWUC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눌 필요 없이,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모두의 공간인 셈이다.



이수현 이사

“티몬워드유 카페가 장애인 청년들이 교감하고 상생하며 꿈을 키워가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페가 자리 잡은 가로수길은 신분당선 신사역 개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매달 눈에 띄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학교도 많아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착한 소비를 확산시키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카페 사업이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험이 일상이 되는 곳’으로 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티몬워드유 카페의 경험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저희 노하우를 나눠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성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함성재 바리스타(자폐성장애)

“고등학생 때 직업훈련으로 커피머신을 다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인상 깊어서 커피 공부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2021년 10월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다른 카페에서도 짧게 근무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넓고 깨끗한 환경을 갖춘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뻐요. 아직은 음료를 복잡하게 주문하시면 좀 힘들기는 하지만 매니저님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연말에 부모님과 외식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저축도 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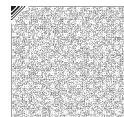




‘걱정인형’에 근심 맡기고 유쾌한 새해맞아요 최은영·최윤희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상담원 주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체험훈련을 담당하는 최은영 상담원 주임과 최윤희 상담원 주임이 서울 인사동의 명물, 쌈지길 2층을 찾았다. 이곳에는 한지로 생활소품을 만드는 ‘두리두아트샵’이 있다. 두 사람은 한지로 걱정인형을 만들고 걱정처방전을 작성하면서 근심을 털고 새해 새 희망을 이야기했다.

글 편집부 / 사진 김창제



내 고민을 들어줄 한지 걱정인형 만들기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누군가가 ‘걱정은 내게 맡기고 너는 편안하게 잠들렴’이라고 속삭여준다면, 아마도 마음 풋 놓고 단잠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마야 문명의 발상지 과테말라에서 유래했다는 걱정인형은 이런 애정과 위로의 속삭임을 담은 자그마한 인형이다. 한지 걱정인형은 한지라는 소재로 한국적 감성을 더한 두리두아트샵의 대표작. 한지로 얼굴과 몸통, 팔, 다리를 만들고 자그맣게 뭉친 색실이나 풍성한 양모로 머리카락을 만드는 손가락 크기의 인형이다.

한지 걱정인형을 직접 만들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최은영, 최윤희 상담원 주임이 인사동의 공방을 찾았다. 최은영 상담원 주임은 제과, 간병보조 직업체험을 맡고 있다. 최윤희 상담원 주임의 주요 업무는 직업훈련준비과정 프로그램 운영이다. 두 사람은 체험 당일이 마침 학생들 방학하는 날이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다고 했다. 공방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인형과 상품은 종류가 다양해서 두 사람은 만들고 싶은 인형을 직접 고를 수 있었다. 최은영 상담원 주임은 화사한 색감의 양모 머리가 포인트인 레인보우 해피돌을 골랐고, 최윤희 상담원 주임은 ‘클래식이 최선’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기본 걱정인형을 선택해 체험을 시작했다.



최은영·최윤희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상담원 주임이 한지 걱정인형 만들기 체험을 함께했다.



나만의 취향이 보이는 생김새와 스타일

한지 걱정인형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몸통 제작. 흰색 한지를 돌돌 말아 목공풀로 고정하는 작업이다. 작은 인형을 만들려니 종이도 작아서 단단하게 말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은 빠르게 몸통을 완성했다. 다음 단계는 완성한 인형 몸통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한지를 꼬아 만든 색색의 지끈 중 두 가지 색을 골라 몸통에 둘렀다. 작은 몸통에 꼼꼼하게 둘러야 하는 세밀한 작업이라 두 사람 다 말없이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몸통에 옷을 입히니 제법 인형다운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몸통 위부분에 눈과 입을 붙여 얼굴을 만들고 양옆에 팔과 다리를 붙일 시간이다.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은 검은색 한지를 핀셋으로 집고,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집중력을 발휘해 눈, 입, 팔, 다리의 순으로 한지 걱정인형을 완성해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최은영 상담원 주임은 두 가지 색의 양모를 예쁘게 땋아 풍성한 머리술을 표현했고, 최윤희 상담원 주임은 명주실을 자그맣게 뭉쳐 섬세한 머리카락을 완성했다. 하나만 만들고 끝내기 아쉬워 하나씩 더 만들기로 했다. 두 번째 인형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생각에 만드는 손길이 신중해졌다. 그래도 두 번째 만들 때는 조금 더 속도가 불었다. 마지막으로, 완성한 한지 걱정인형을 투명한 유리병에 담은 후, 함께 넣어줄 걱정처방전을 작성했다.



한지를 꼬아 만든 색색의 끈으로 인형을 만들었다.



유리병에 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 한지 걱정인형

걱정처방전에 적은 새해 희망

최윤희 상담원 주임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걱정처방전을 적었다. 인형은 각각 ‘행복이’, ‘건강이’라고 이름도 붙였다. 걱정인형에게 부모님 건강과 지금 하는 일에 관해 바라는 점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고용연계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취업 전 평가에서 돌발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학생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복 학습과 훈련으로 행동을 수정해나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참여하는 학생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한 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다니면 좋겠어요.”

‘손도 빠르고 재주가 있다’라며 연신 동료를 칭찬하기 바빴던 최은영 상담원 주임은 두 개의 인형 중 하나는 대학생



딸의 뜻이라고 했다. 일본어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딸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기원하며 걱정인형 이름을 ‘행복 경영학도님’이라고 붙였다. 자기 뜻의 인형은 ‘행복이’라고 부르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마음을 걱정처방전에 담았다.

“제가 맡은 제과와 간병보조 직업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학교생활과 훈련과정에 잘 적응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좀 더 쉽고 간단한 말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해당 직무에 맞는 대화 위주로 구성해 실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요.”

두 사람은 2023년에도 99퍼센트에 달하는 현재의 취업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들려주며 이날 만남을 마무리했다. 직접 만든 한지 걱정인형을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빛났다. 이제 그날그날의 고민을 들어줄 작은 친구를 곁에 둘 수 있게 됐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다.

체험 소감 한마디



더 이상 걱정은 그만!

최은영 상담원 주임

“누구나 걱정 하나씩은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병 속에 걱정인형을 담는 행위를 통해 걱정을 객관화하면서, 이젠 더 이상 걱정을 끌어안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훈련센터에 오는 학생들도 한지 걱정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2023년엔 더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길, 우리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길 기원해봅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라!

최윤희 상담원 주임

“그동안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조용히 차분하게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에 걱정처방전을 작성한 것도 재미났고요. 2023년엔 부디 가족들 모두 건강하길, 또 우리 훈련센터에 오는 학생 모두 좋은 곳,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걱정처방전에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라!’라고 적어뒀으니 꼭 이루어지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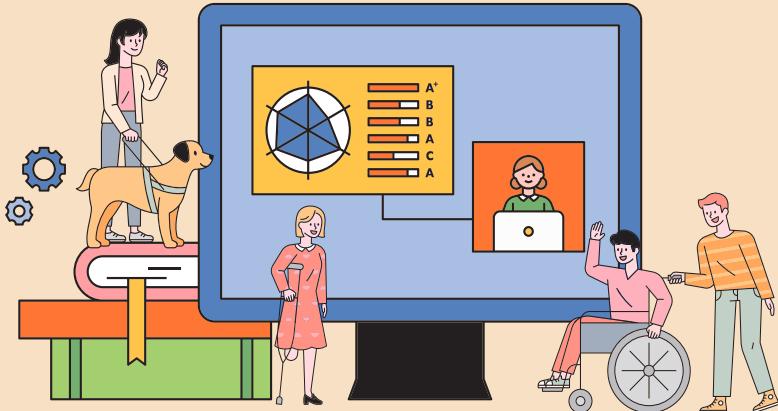




2023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부의 새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보다 7,000억 원 늘어난 5조 8,000억 원이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늘렸다.

글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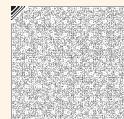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의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장애인 고용 유인과 능력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등이 2022년보다 확대된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은 2022년 2,624억 원에서 2023년 2,977억 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남성 경증 30만 원에서 35만 원, 여성 경증 45만 원에서 50만 원, 남성 중증 60만 원에서 70만 원, 여성 중증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해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단이 설립 및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표준사업장 기준을 제시해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는 2022년 364억 원(120개소)에서 2023년 449억 원(147개소)으로 늘어난다.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도 확대된다.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는 갈수록 증가하는 침단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이다. 2023년 예산에는 전국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42억 원이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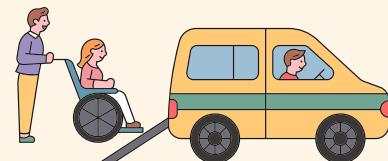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출퇴근 비용 지원은 2022년 26억 원(3,900명)에서 2023년 69억 원(1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2022년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받은 중증장애인이나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
2023년 449억 원(147개소)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2023년 전국 42억 원(6개소)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2023년 69억 원(1만 5,000명)



장애인 일자리사업 보수
시급 9,620원(월 최대 201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2만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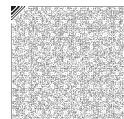
장애인 일자리사업 보수
시급 9,620원(월 최대 201만 원)

장애인 월 6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2만 9,546명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표방하고 장애인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8,000원에서 4.7퍼센트 오른 32만 2,000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는 11만 8,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7.9만 명을 대상자로 하고, 돌보미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2,000개 늘어난 2만 9,546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 9,620원(월 최대 201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IT 취업 돋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 개소

IT 산업은 갈수록 다양한 직군의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IT 직종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준비하고 구직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12월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가 서울 구로, 경기 성남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글·사진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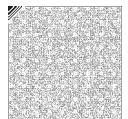


디지털 기초훈련부터 재직자 교육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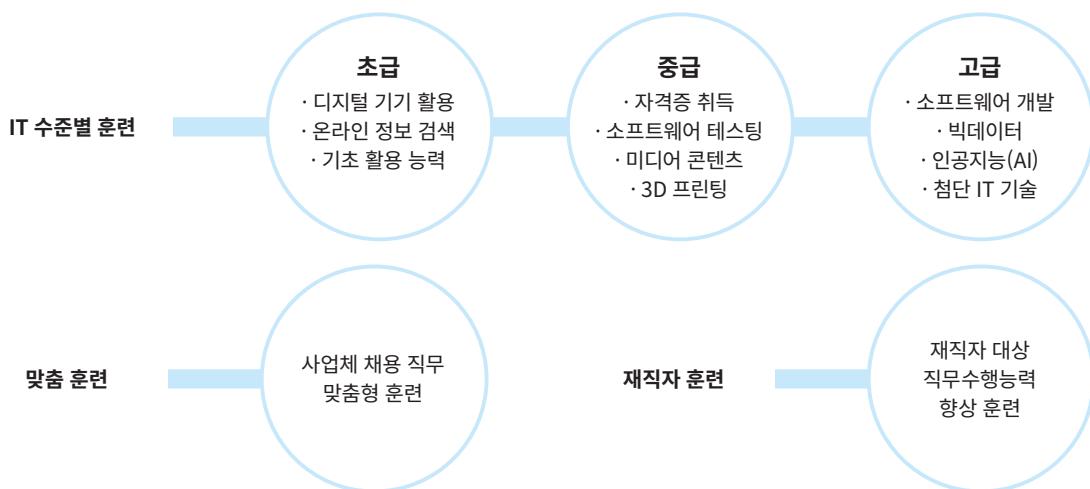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광주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했다. 광주디지털훈련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IT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 훈련센터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기초부터 시작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가가 되기까지 단계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디지털훈련센터는 참여자의 역량에 따른 IT 수준별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부터 시작하는 초급, 미디어콘텐츠와 3D 프린팅 등을 배우는 중급,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개발 등 첨단 기술을 익히는 고급 과정이 마련돼 있다. 이 외에 사업체의 채용 직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훈련이 있고, 취업 후에는 재직자 대상 직무수행능력 향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은 전용면적 1,539.7m²(465.8평) 규모에 강의, 사무, 편의 공간을 배제하게 조성했다. 훈련실, 다목적실, 3D프린터실의 강의 공간뿐만 아니라 상담실, 강사대기실, 심리안정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광주 양동시장 옆의 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같은 건물에 개소해 이곳에서 훈련과 취업을 적절히 연계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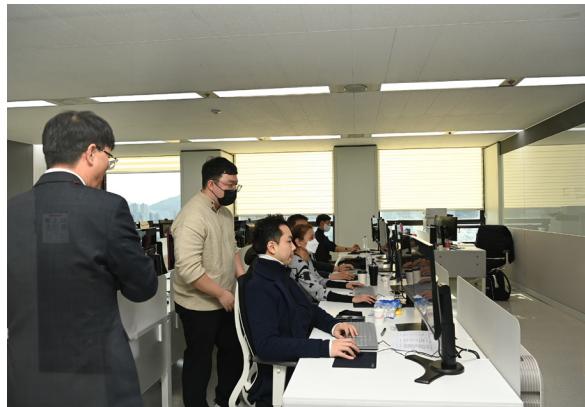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훈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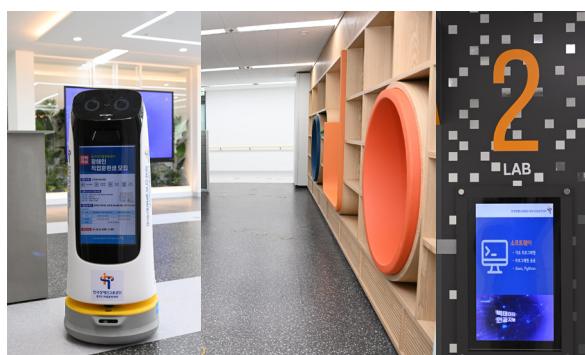
IT 취업 원하는 지역 장애인 수요에 대응

공단이 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1년 11월 구로에 제1호 디지털훈련센터가 설립됐고, 2022년 1월에는 경기맞춤훈련센터가 판교디지털훈련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IT 및 디지털 맞춤 훈련기관으로 탈바꿈했다. 국내에서 세 번째, 지방에는 최초로 광주에 디지털훈련센터가 설립됨으로써 IT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훈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장애인의 IT 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훈련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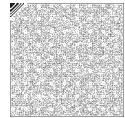
광주디지털훈련센터 개소식에는 조향현 공단 이사장,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문영훈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광주디지털훈련센터 개소로 지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장애인 정보기술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단은 IT 분야의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디지털 훈련센터에서
빅데이터 관련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음성인식 로봇, 휴게공간, 훈련실



장애인을 노동력의 원천으로 보는 호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호주도 예외는 아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글 정용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장애인 정책

호주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53퍼센트로,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4퍼센트인 것과 대조적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특히 저조한데, 27%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2). 노동시장 참여 면에서 호주 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Thomas, 2022).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였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을 주변화한 사회복지 수급자로 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증가하는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기술 노동의 원천으로 간주하려는 정책적 변화를 추진해 왔다(Buys, Matthews & Randall, 2015). 호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0년마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고용 문제는 그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된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정책(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은 장애인 고용이 장애인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재정적인 독립성 그리고 신체적·정서적 웰빙을 제고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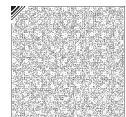


호주의 다양한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고용서비스 로고

호주 전역에 구축된 장애인고용서비스

호주에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장애인고용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다. 호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다양한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이들은 중앙 정부와 재정지원 계약을 맺고 있으며,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호주 전역에 106개의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약 3,800군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장애인고용서비스는 근로 능력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조화돼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장애관리 서비스(Disability Management Service)'로서 장기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정기적이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고용지원서비스(Employment Support Service)로서 영구적 장애가 있는 구직자에게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1).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 이후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지만 호주 장애인 고용정책의 관심사는 소위 회전문 현상(단기 고용으로 종료되고 다시 고용지원서비스로 복귀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장기 고용을 촉진·지원하는 데에 있다. 기술자 부족을 겪는 산업·직업군에 장애인 고용 확률을 높이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1).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은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이후 후속 지원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취업 후 서비스(Post Placement Support)는 장애인이 취업 후 6개월 동안 직장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후속 지원 서비스(Ongoing Support)를 제공한다. 이 모든 활동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장애인고용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는 취업 코치(job coach) 혹은 취업 컨설턴트(job consultant)다. 이들은 장애인 구직자의 옹호자 혹은 의사결정 자문가로서 장애인의 구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의 고용 욕구와 취업 목표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기술훈련과 취업 준비 지원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 등을 수행한다. 구직 단계를 넘어서서 취업 이후 장애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협상·제공하는 역할도 이들이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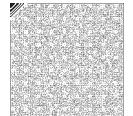
접근포용지수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는 노동 공급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잠재적인) 장애인 노동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다.

최근 호주 정부는 ‘호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전략(Australian Public Service Disability Employment Strategy 2020-25)’을 발표하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 증가와 장기 보유를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호주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7퍼센트로 상승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포용적인 직장문화와 장애인 친화적인 근로환경 형성을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2020).

민간 고용주 지원은 호주 역시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할만한 점 중 하나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민관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호주장애인네트워크(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는 장애친화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서, 300개 이상의 민간기업, 공공 기관, 교육/의료기관 및 비영리 기구들로 구성돼 있다.

호주장애인네트워크 회원사들은 장애인 접근이 수월하고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사례를 공유한다. 매년 회원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접근포용지수(Access and Inclusion Index)’를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절차, 실천을 점검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한다.



접근포용지수는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물리적(접근성, 업무환경 등)·비물리적 장벽(커뮤니케이션, 채용, 승진 등)을 해소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측정한다(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 2021). 접근포용지수 보고서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들이 공개되며, 이는 장애인 고용을 개선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도록 한다. 실제로 호주장애인네트워크 소속사이거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기업은 이를 중요한 성취와 자랑으로 여긴다.



Jaime
Co-Owner, Belmont Hotel Bendigo



Kyle
Employee, Belmont Hotel Bendi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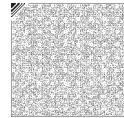
- My caseworker helped me to get a job.



Kelly
Employment Consultant
CVGT



호주의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 CVGT Employment가 장애인 취업 지원 사례를 소개한 영상 화면캡처



MZ세대 아트 컬렉터, ‘새롭고 리즈너블한가’

저축보다 투자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MZ세대가 미술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아트와 재테크를 합성한 단어인 ‘아트테크’에 MZ세대부터 중장년까지 폭넓게 가세하는 중이다. 부유층과 예술애호가의 전유물이었던 미술품 구매가 대중화로 접어들었다

글 편집부

MZ세대의 미술 소비와 아트페어

서울 여의도의 더현대서울은 MZ세대가 몰리는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다.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와 상품 구색, 무엇보다 MZ세대 소비자의 미술 감상과 구매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더현대서울의 알트원(ALT.1)은 전문 전시장 수준의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갤러리가 핵심인 복합문화공간이다. 오픈 당시부터 앤디 워홀의 대규모 회고전인 <앤디 워홀 : 비기닝 서울>을 열어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도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더현대서울의 ‘어반브레이크 2022 프리뷰전’ / 사진. 현대백화점





유통업계는 MZ세대의 미술 소비에 빠르게 반응하는 중이다. 백화점들은 기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 아트페어를 개최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트페어는 화랑들이 모여 미술품을 선보이는 장터다. 2022년에는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가 서울에서 동시 개최돼 미술시장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았다. MZ세대의 아트테크 유행과 미술시장 최대 이벤트가 만난 화제성은 굉장히 커, 기업들은 적극적인 아트마케팅을 펼쳐 그 파급력을 증폭시켰다.



시그니엘호텔에서 열린 ‘롯데아트페어 부산 2022’

/ 사진. 롯데백화점



신한카드의 ‘더프리뷰 아트페어’ 입장 대기 줄(왼쪽)과 뱃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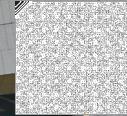
/ 사진. 신한카드

‘리즈너블(reasonable)한’ 가격인가

기업의 아트마케팅은 사회공헌 성격이 강하지만, 미술 감상과 구매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그 성격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단순히 미술가를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신한카드는 ‘더프리뷰 한남’으로 시작해 ‘더프리뷰 성수’와 ‘더프리뷰 아트위크’까지 아트페어를 연이어 개최했다. 여는 행사마다 MZ세대 소비자가 몰리고 각종 SNS에 인증과 후기가 속속 올라오는 등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더프리뷰 아트페어는 점점 늘어나는 미술 거래에 따라 결제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신진 미술가를 발굴하는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MZ세대 컬렉터는 유명한 화랑과 평론가가 주목하지 않았던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작가와 작품의 유명세보다 ‘리즈너블(reasonable)한’ 가격인지에 주목한다. ‘리즈너블하다’는 것은 가격에 거품이 없는 합당한 상태, 자기 능력으로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기준이고 미술품 구매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미술 투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인증하며 전파하기 좋아하는 MZ세대의 성향에도 부응한다. 유명 아이돌이 이중섭 화가의 작품을 구매했다고 인증하면 그 아이돌의 특별한 취향과 높은 안목이 추앙받고 다시 많은 이들의 미술 감상과 구매 욕구에 불을 붙인다. 그렇게 대중의 미술품 구매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위를 피해 떠나는 지식 여행, 박물관 투어

어릴 적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코스에 꼭 포함돼 있던 박물관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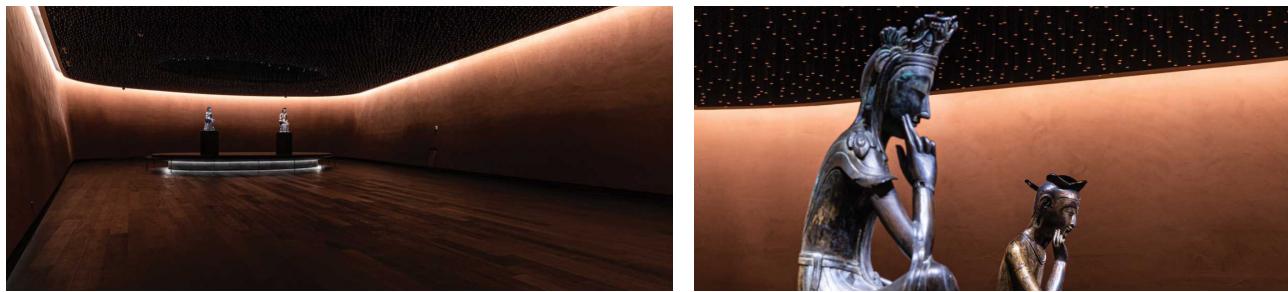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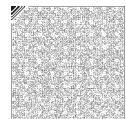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 박물관만큼 흥미진진한 곳이 드물다.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과 시대, 위대한 발명과 저작물이 주는 감동이 크게 와 달기 때문일 것이다. 전시가 알차고 장애인 접근성이 뛰어난 박물관들을 모았다.

글 편집부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

국립중앙박물관은 6개의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어린이박물관까지 하루에 다 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김홍도가 그린 길이 8.5미터의 대작을 파노라마 영상에 담고, 고구려 벽화무덤을 VR(가상현실)로 구현했다. 기획전시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이 3월 1일까지 열린다. 국보 반가사유상을 전시한 ‘사유의 방’도 꼭 방문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날씨가 따뜻하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쉬기도 좋은 곳이다. 무장애길과 저시력 관람객용 대활자 책자, 오디오 전시 해설 등 장애인 관람객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 월·화·목·금·일 10:00~18:00 수·토 10:00~21:00 (관람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 휴관 1월 1일, 설날, 추석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사유의 방'과 국보 '금동 반가사유상'

서울역사박물관의 실감형 전시

서울역사박물관은 2022년에 개관 20주년을 맞아 상설전시실을 전편 개편해 실감형 디지털 전시 체험존을 선보였다. 타임머신을 탄 듯 개화기의 종로로 이동해 전차를 타고 신문물을 만나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22년까지 755명이 20만여 점의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유물의 70퍼센트에 달하는 수량이다. 그래서 2023년 4월까지 진행되는 개관 20주년 기념 기증유물 특별전 <시민이 만든 박물관>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달 한 편씩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한다. 문화행사 소식은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 화~일요일 09:00~18:00 (관람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 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전경과 소장 유물 (<제47회 전국체전 운영책자>, 1957년에 발행된 <현대문학>) /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으로 아이와 겨울방학 나들이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가 만든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飛車)', 라이트 형제의 복엽기 '플라이어 호' 등 세계 항공사를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전시가 눈길을 끈다. 태양광 무인기와 자율주행 항공기 등 항공산업의 미래도 만날 수 있다. 야외 공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인물 동상 등이 조성돼 있어 사진 찍기 좋다. 블랙이글스 텁승, 관계사와 조종사 직업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하고 유료다. 입구와 내부에 턱이 없고, 전시물은 휠체어 이용자가 관람하기 편하도록 여느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 낮게 배치돼 있다.



- 화~일요일 09:00~18:00 (관람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국립항공박물관 전경과 내부 / 사진. 국립항공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여는 ‘토끼의 해’

국립민속박물관은 월요일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갑자기 휴가를 얻거나 시간이 날 때 방문하기 좋다. 2023년 새해를 좀 더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3월 6일까지 본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새해, 토끼 왔네>를 관람해도 좋을 것이다.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십이지의 네 번째 동물인 토끼의 십이지 장식품 70여 점을 소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와 체험 모두 무료 예약제로 운영된다.

- 화~일요일 09:00~18:00 (관람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 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



국립민속박물관 전경과 <새해, 토끼 왔네> 특별전의 전시품(판소리 '수궁가' 속 토끼와 거북이 목각인형, 화조영모도 '토끼와 단풍나무') /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알쏭달쏭 직장생활

“회사 사람들이 저와 동료더러 사귀라고 해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지 궁금하고 불안하며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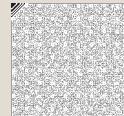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

?

?





고민 1. 팀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힘이 듭니다. 칭찬을 자주 받지만 남들한테 이용당하나 싶기도 해요.

어느 조직에서나 한 사람에게 많은 일이 몰리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바로 그런 경우라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사가 질문자 님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 분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칭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잘못 이뤄진 업무 분배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겠지요. 선배나 상사가 한 사람에게만 일이 몰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지도 타인의 시선으로 점검할 기회가 될 겁니다. 같은 일을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많은 일을 잘 처리해 인정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과중한 업무를 혼자서만 감당하게 된다면 회사생활을 오래 계속하기는 어렵겠지요.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투가 아닌, 문제를 상의한다는 태도로 선배나 상사와 의논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 2. 미혼 직원인데 회사 사람들이 특정 동료와 저더러 사귀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지만 계속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반복되는 농담이나 장난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는 흔한 것 같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면 쉽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더 난감하지요. 그분들은 정말로 가벼운 장난이거나, 어쩌면 놀랍게도 질문자 님에 대한 관심과 호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받는 사람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표현이 옳지 않다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요) 혹시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사나 동료와 불편해지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런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불편함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힘주어 ‘나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불편하다. 호의라도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다들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일 때 ‘나는 불편해’라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용기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고민 3. 신입사원인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처음 배우는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새롭게 처리해야 하는 일과 그 매뉴얼을 전달받았다면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기 쉬운지 등을 선배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실수에는 누구나 너그럽지만, 같은 실수가 자주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완료한 후에 반드시 처음부터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오탈자나 비문이 없는지 검수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미리 확인한 후 두세 번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 해보는 일일수록, 머리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수첩 등에 기록해가며 눈과 손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든 후에 하나씩 지우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재점검하는 습관을 들여 나간다면 실수는 분명 당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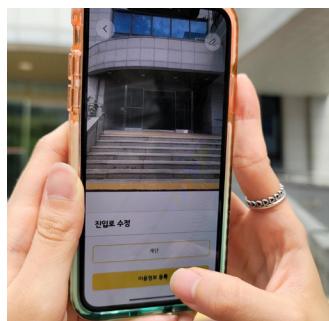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 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과캠핑 #풍경은아름다운데 #끌차이동힘들어 #편리한접근로필요

별이 쓸어지는 동네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도착 후 캠핑장 내 사이트까지 끌차를 가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접근로의 환경이 개선되어 유모차, 휠체어, 끌차 등을 이용하는 모두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윤미 과장, 공단 BF인증팀



#시시각각 #장애인접근성 #도보내비게이션만들기 #사진한장도소중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시시각각 프로젝트예요. 공단을 포함해 50개 기관 임직원들이 개선해야 할 곳을 찾아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모은 사진들이 장애인의 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잊지 않고 한 컷 찍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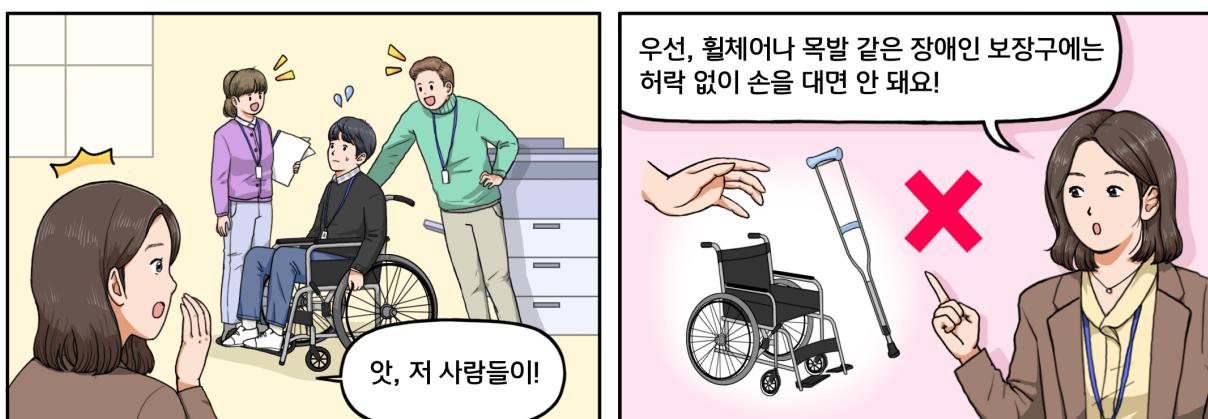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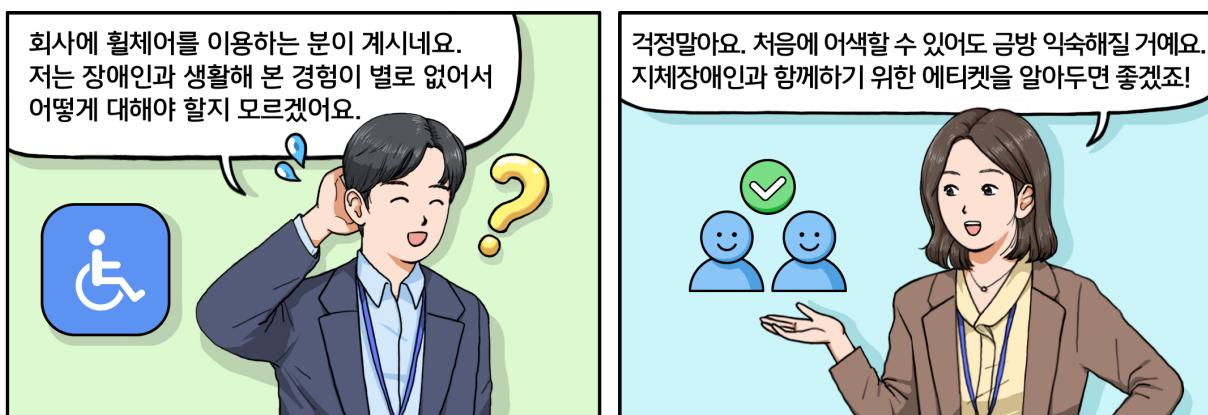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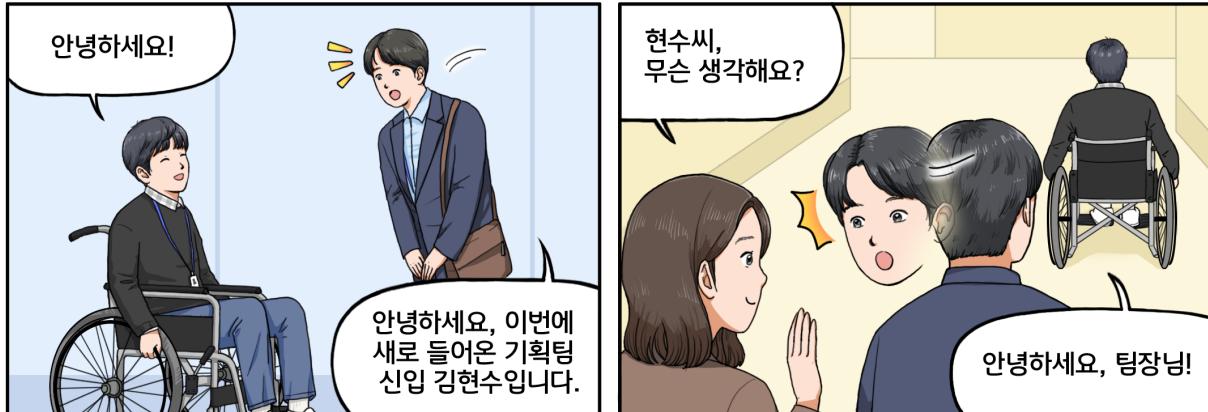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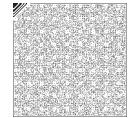
이지선 과장, 공단 소통협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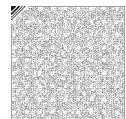
#제주여행 #이름모를들꽃들 #힐링이필요할때 #사진찍는모습찍기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 파란 하늘과 상쾌한 공기, 아기자기한 들꽃들과 함께하며 진짜 힐링하고 왔습니다!

이한나 수어통역사, 공단 능력개발운영부







KEAD 뉴스

2023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성공 기원 D-100일 행사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성공 기원 D-100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0회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의 종합우승과 7연패 달성을 다지는 자리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와 기술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K-POP 보이그룹 블랭키(BLANK2Y)를 제10회 국제대회 한국선수단 홍보대사로 위촉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제10회 국제대회는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9회(프랑스 보르도)까지 종합우승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으며, 제10회 국제대회도 종합우승 7연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금상 수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장애인 근로자의 성장을 돋는 「무장애 재택근무 솔루션 ‘가치일’ 해요」로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무장애 재택근무 솔루션’은 장애인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택근무 지원 온·오프라인 서비스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사업체에는 업무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직무에 재택근무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설계됐다.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역에 펼쳐지는 일곱 번째 대국민 네일케어 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번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안양역점을 개소했다.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은 공공자원인 철도역의 가용공간을 활용한 기업주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완성된다. 안양역점은 민간기업인 SK쉴더스 주식회사가 참여했다. 매장 위치는 안양역사 2층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섬섬옥수 안양역 채널을 통해 예약하고, 당일 기차 승차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9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25명 수료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SNS 내꿈내일 기자단 제9기의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단은 약 8개월 동안 활동하며 공단 사업 및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장애인 행사, 일터 등의 현장을 방문해 생동감 있는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올해는 영상 기자단을 함께 운영해 수준 높은 영상 콘텐츠로 장애인 고용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기자들의 활동 후기를 공유하고 수료증 전달 및 우수 기자 포상을 진행했다. SNS 기자단의 기사는 공단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The image shows an Instagram profile for the account `haha_kead`. The profile picture is a circular icon featuring a stylized figure. The bio text is "haha_kead". Below the profile is a large, colorful illustration of five young people (three boys and two girls) standing together against a yellow checkered background. A caption in Korean reads: "'장애학생 진로의 빛을 밝히다'" and "2022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Below this, another caption says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t the bottom of the profile, there is a red heart icon, a white question mark icon, a white triangle icon, three grey dots, and a black square icon.

Instagram
haha_kead

"장애학생 진로의 빛을 밝히다"
2022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온라인 실시간 소통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2022년 사업
을 소개하고 2023년에는 더 새롭고 일차계 준비하겠다는
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Instagram
haha_kead

다음을 아름다움으로! 런웨이 위 장애인 모델

국내외 패션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장애인 모델들의 활약이 김동하고 희망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와 욕구를 고려해 만든 패션도
만나보세요.